시 론

AI와 웃음이 꽃피우는 전남·광주의 新 르네상스

김 영 식
前 남부대학교 교수·
국제웃음생명연구소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미지의 영역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단순한 정보처리 기술을 넘어 우리의 직업과 교육, 의료, 주거,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최근 전남과 광주가 초광역 통합의 큰 걸음을 내디디며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재탄생한 것은, 이러한 미래 문명사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맞이한 결정적 기회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미래학자들의 전망처럼 AI와 자율주행, 최첨단 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수도권 집중이나 특정 주거지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있다.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AI 시대의 명품 도시 조건은 비싼 아파트 단지가 아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고귀한 가치를 느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다.

첨단 AI 인프라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갖춘 광주의 초지능 기술,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한한 생태 자원을 품은 전남의 치유 에너지가 하나로 융합된 '통합 전남·광주'는 세계 어느 도시도 갖지 못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통합의 공간에서 첨단 기술과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 핵심 자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과 웃음 산업의 상생적 조화'다.

특히 웃음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병리 현상을 해결할 강력한 열쇠다. 사회 범죄 예방, 가정 해체와 갈등 문제, 청소년들의 방황과 학업 스트레스, 나아가 우울증 등 각종 사회적 정신 건강 문제와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 치매 문제에 이르기까지, 웃음은 수많은 난제를 풀어나갈 실질적인 치유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그렇기에 웃음 문화를 선도할 전문 지도자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웃음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행정적·교육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갈되지 않고 스스로 번져가는 웃음 산업이야말로 영구적 위기의 시대에 인류가 끊임없이 열정을 발산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한 에너지 동력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웃음을 연구하는 미래사회학자의 시선으로 '통합 전남·광주'가 나아갈 융합 웃음산업의 미래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 'AI 기반 맞춤형 힐링·웃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구축이다. 첨단 AI 알고리즘이 도민들의 생체 신호와 뇌파, 표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 전남·광주의 다도해와 숲속 힐링 센터에서 최적화된 웃음 치료 프로그램과 맞춤형 웰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의 정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웃음학이 영혼을 치유하는 최첨단 헬스케어 메카로 거듭나는 길이다.

둘째, '웃음·감성 테크놀로지 기반의 에듀테크 및 돌봄 산업'이다.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하는 고령층과 아동들을 위해 AI 돌봄 로봇에 정서적 교감 알고리즘과 유쾌한 웃음 소통 콘텐츠를 결합하는 것이다. AI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웃음의 물꼬를 터주는 '감성 매개체'로 작용할 때, 기술은 비로소 인간을 위한 온기를 품게 된다.

셋째, '글로벌 웃음·생태 관광 벨트'의 조성이다. 특히 9월 열린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위대한 도약 역시 결국 전 세계인을 맞이하는 남도의 따뜻한 미소와 호탕한 웃음에 달려 있다. 최첨단 AI 문화콘텐츠와 전남의 아름다운 섬, 자연을 결합하고, 여기에 남도 특유의 정겨운 웃음과 친절을 더할 때 전 세계인이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고 '호탕한 웃음의 정기'를 얻어가는 독보적인 글로벌 휴양 거점이 완성될 것이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가장 고결한 공용어다. AI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우리는 AI처럼 기계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더 빠르게 경쟁하기보다 더 따뜻하게 공감하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기술의 미래는 AI가 만들어가지만, 인간의 행복한 미래는 사람이 만들어가야 한다."

전남·광주의 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최첨단 AI 기술에 따스한 인간의 웃음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문명사적 실험이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와 함께 웃느냐가 곧 우리의 미래가 된다. 9월 여수 바다를 물들일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환한 미소처럼, AI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우리는 호탕하고 시원한 웃음으로 전남·광주를 넘어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다. 그 푸른 웃음 속에 모교와 고향,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미래가 온전히 피어난다.

기 고

책은 어디에 머물고, 기억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류 재 준
작가

필자가 사는 집에는 오랜 세월 한 권씩, 두 권씩 모아 온 책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책장이 부족해질수록 고민도 깊어진다. 마땅히 기증할 곳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오래된 책에는 밑줄 하나, 접힌 페이지 하나에도 그 책을 읽던 시절의 생각과 기억이 남아 있다. 어떤 책은 당시 만났던 사람과 지나온 시간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책은 소유의 대상인 동시에 한 사람의 시간이 축적된 기록이기도 하다.

이런 시점에 시민들이 소장한 책과 자료를 모아 책박물관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결합한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무척 반갑다.

한 세대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헌책으로 처분되거나 폐기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개인의 서재에 머물러 있던 책과 기록 가운데 가치 있는 자료를 선별해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자는 발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반가운 일과 공공정책으로서 타당한 사업인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취지가 곧 좋은 사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책박물관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면 필요성뿐 아니라 기존 시설과의 차별성, 실제 이용 수요, 입지, 재원, 운영 주체와 지속 가능성까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면 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기존 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책을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박물관의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모든 기증 도서를 보존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역사적·학술적·지역적 가치에 따른 수집과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확보한 자료를 연구·전시·교육·디지털 아카이브 등으로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건립 방식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대규모 독립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최선인지, 기존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는 지역의 유휴 공공시설과 근대건축물을 재생해 활용할 것인지 비교해야 한다.

문화시설은 건립보다 운영이 더 어렵다. 건축비는 한 번 들어가지만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자료 보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년 발생한다. 결국 누가 운영하고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

지역 발전 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책박물관이 관광자원이 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문화시설 하나를 만든다고 관광객과 지역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전남광주의 도서관, 문학관, 기록관 및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해 각각의 공간이 가진 기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한 건물에 담는 방식보다 지역 곳곳의 자원을 연결하는 '분산형 라키비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건립 규모와 장소를 먼저 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어떤 책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시민 소장 자료 실태조사와 이용 수요 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검토, 건립·운영비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 독립적인 책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작은 책박물관이나 분산형 라키비움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어느 하나를 미리 정해 두기보다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에 쌓여 있는 책들을 바라보며 가끔 생각한다. 언젠가 내가 이 책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이 책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개인에게 책은 추억이지만, 그 가운데 어떤 책은 한 시대의 기록이자 지역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책박물관 논의가 반가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책을 보관할 또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기억 가운데 남길 가치가 있는 것을 지역의 기억으로 이어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자투고

추수철 농기계 안전사고, 한 번 더 살펴야 할 때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면서 본격적인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다. 농업인들에게는 1년 동안 흘린 땀과 정성을 거두는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 농기계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농기계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농기계 교통사고의 경우 277건이 발생해 33명이 숨지고 301명이 다쳤으며 치사율은 11.9%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보다 약 9배가 높다. 농기계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끼임·전복·전도·교통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농기계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시동을 끄지 않고 제거하다 발생하는 끼임 사고와 바쁜 농사로 밤늦게 일을 하다 불가피하게 어두운 도로를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브레이크, 타이어, 조향장치, 등화 장치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농기계 정비나 이물질 제거 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시동을 끈 후 작업해야 한다.

또한, 야간 농기계 운행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도로를 운행할 시 등화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음주 후 농기계를 조작하거나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추수철 순간의 방심이 한 해 농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할 수 있다. 농기계 조작 및 운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고 없이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조은지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서남권 관광산업의 체질 바꾸는 마중물 기대된다

무안국제공항을 관문으로 무안·목포와 광주, 여수를 하나를 연계도시로 구상한 관광권이 정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무엇보다 서남권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관광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해 5대 관광권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무안공항 관광권은 무안공항과 광주의 KTX, 여수항 크루즈를 잇는 '삼각 벨트 관광권(Tri-port)'을 구축해 서남권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관광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안·목포의 서해안 관광을 시작으로 광주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섬·레저를 하나의 여행 동선으로 묶는 여수의 해양관광을 즐기는 새로운 관광벨트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관광의 범위를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정 도시 하나가 아닌 무안과 목포를 관문도시로, 광주와 여수를 연계도시로 설정해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5대 관광권 육성을 위해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모두 935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해외 마케팅과 지방공항·항만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권 내 교통망 개선, 지역별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5대 관광권 자체에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로 삼아 무안·목포-광주-여수 지역이 얼마나 치밀하게 협력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도대로 무안공항을 통해 들어온 관광객이 서남권을 찾은 후 지역 곳곳에 오래 머무는 관광권을 만든다면 전남광주의 행정통합 행정의 상생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도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석 열차 '예매 전쟁'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

코레일과 SR의 통합 이후 지역민들은 KTX와 SRT를 연결하는 중련 운행을 통해 좌석 증편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전보다 운행 좌석도 늘어나니 명절마다 반복되던 '예매 전쟁'도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한마디로 "KTX와 SRT가 경쟁하는 구조"였다면,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고속철도망에서 차량과 좌석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에 환영했다.

하지만 통합 이후 첫 추석을 앞둔 작금의 현실에는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운행 횟수는 물론 좌석 수까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구하기 위한 '예매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SR은 9월부터 통합 열차 운행을 시작했고, 통합 앱 '코레일+'를 통해 승차권 예매를 일원화했다. 이에 호남·전라선 하루 운행횟수는 평일·주말 모두 4-5회, 최대 9회 늘어났으며 좌석 수 역시 1천-5천개 가량 공급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에도 기존에 주말·명절 전후로 발생했던 좌석 부족 불편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섞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에 따르면 수서역 KTX 예매가 시작된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한 결과 1시간 만에 수서역에서 광주송정역으로 가는 열차 대부분이 매진돼 있었다. 광주송정역을 출발로 했을때는 일부 새벽 출발 열차가 남아있긴 했으나, 오후 시간대는 자리가 거의 남지 않았다.

이에 귀성·귀경을 앞둔 승객들 역시 "예매 전쟁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입을 모았고, 일부 시민들은 옅은 한숨을 내쉬고선 시외버스 시간표를 찾아보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매년 명절때마다 반복되던 '예매 전쟁'이 이번 추석에도 큰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KTX·SRT 통합 이후 가장 기대하는 것은 좌석 공급 확대과 운행 횟수 증가, 예매 편의성 향상 등이 핵심이다. 이에 조직과 앱을 하나로 만드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이 늘어날 때 비로소 통합의 의미가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발칙한 핑계」 - 허은희

왜 나를 모르는 척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 나는 못 들은 척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의 개수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젠가 잃어버린 작은 볼펜이 놓여 있던 자리를 더듬어 보거나 빨아 널은 수건이 마르는 시간까지 지켜보고 싶다고 중얼거리거나 먼저 떠난 친구가 그곳의 언어를 잘 배우고 있는지 그곳에도 비가 내리는지 궁금해하거나 흰색과 살색 사이에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하늘과 땅 사이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갸우뚱거리다가 소리 없는 공간에 갇히고 싶다고 귀도 눈도 뽑아버리고 구멍구멍 횟가루로 메우고 싶다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너를 보며 실실 웃기만 하지, 너는 내게 말하지 바닷가 모래 알이나 세어라

- 허은희 시집『열한 번째 밤』중에서

큰 핑계를 지닌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자꾸 탈이 나는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나고 은행들이 파산하고 유람선이 침몰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학살이 일어나는 것 같다.
작은 핑계를 지닌 사람들은 천사다. 먼지 개수를 세고 떨어지는 낙엽에 덜컥 간이 떨어지고 비가 내릴 땅을 가리는지 궁금해하고 바닷가 모래알을 셀 핑계를 지닌 천사들.
천사들의 핑계를 배우려고 꽃잎 세는 걸 익힌 다음 모래 세는 걸 익힐 작정이다.

- 천세진 시인·비평가 / 웹진 ≪초록의자≫ 주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